

공연예술행사지원

<연극분야>

- 일시 : 2015. 1. 15(목) 15:00~17:30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백로라, 서재형, 송전, 정명주, 조광화

<무용분야>

- 일시 : 2015. 1. 13(화) 15:00~18:00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박재홍, 박성혜, 오혜순, 최두혁, 최해리

<음악분야>

- 일시 : 2015. 1. 14(수) 14:00~17:00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김규태, 윤승현, 이민정

<전통예술분야>

- 일시 : 2015. 1. 9(금) 14:00~17:00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김진이, 노복순, 윤명원, 이화동, 진옥섭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총 132건이 지원 신청되었으며, 분야별(연극, 무용, 음악, 전통)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39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엄선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회의에서 위원들간의 전체적인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나눈 뒤, 개별채점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였다.

먼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요강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최소 2년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전국규모의 공연예술행사를 심의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여기에 지역을 거점으로 하되 참여예술단체 및 향유층의 범위가 전국 규모인 행사, 직전년도 미지원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등의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자 했다. 또한 지원대상의 균점화를 위해 지역별, 세부 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였으며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13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50%, '15년도 사업계획을 50%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틀에서 심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공연예술행사인만큼 독창적이며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사업의 지속성과 차별성은 갖추었는지, 실현 가능성과 조직의 수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향후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채점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살펴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분야별 선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극분야 -

연극의 경우 성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엄선하였다. 접수된 35건의 사업 중 기존지원사업이 15건, 신규지원사업은 20건이었다.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 2013년 평가결과를 50%, 2015년 계획을 50% 반영하여 계속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였으며, 2014년도 동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100% 반영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가 저조한 사업은 제외하였으며, 행사 성격, 장르,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3건 선정하였다.

올해의 경우 본 사업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본 공모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일회성 성격의 행사나 최소 2년간 연례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기본 요건에 미달한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기존 지원 단체의 경우, 축제 운영이나 기획 면에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개선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고민해야하는 점이 보였다. 다른 축제와 차별화된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전국 규모의 연극 분야 공연예술행사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 무용분야 -

무용분야의 경우 총 23건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지원자격조건이 미달되는 6건을 제외한 17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총 10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행사의 형태(경연/축제 등), 장르, 지역의 고른 안배를 고려하였고, 본 지원사업의 고착화를 지양하고자 신규사업 4건을 선정하였다.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 2013년 평가결과를 50%, 2015년 계획을 50% 반영하여 계속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였다.

평가결과 환류에 따라 창무국제무용제는 '우수'등급을 받아 전년대비 지원액을 증액하였으며,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 공연과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의 경우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동안 무용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하여 지속지원으로 결정하였다. 코리아국제무용콩쿠르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나 남성무용수의 현실을 고려, 대안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속지원을 결정하였다. 그 외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 몇 개는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생생춤페스티벌은 작년도에 첫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에서 젊은 무용수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가치를 인정하여 New Dance Festival과 부산에서 아시아지역 교류 중심의 무용행사로 지역 무용계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산국제춤마켓을 지원결정하였다. 크리티क्स 초이스는 전년도 사업운영에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20-30대 안무자들의 발굴과 공연기회 제공이라는 취지를 인정하여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K-ballet world와 우리춤축제는 세부장르의 활성화 가치를 인정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 음악분야 -

음악분야의 경우에는 총 45건이 지원 신청되었으며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7건의 지원 대상 사업을 엄선하였다. 기존 지원 사업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지원금을 증액하였고 계속해서 평가가 저조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선정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원조건을 달았다. 무엇보다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지역 거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공모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일회성 성격의 행사나 최소 2년간 연례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기본 요건에 미달한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콩쿠르 사업도 점차 지원을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 전통예술분야 -

전통예술분야는 총 29건이 지원접수 되었으며 이 중 8건을 선정하였다. 사업공모요강에서 사전에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개최실적이 없는 행사 15건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였다. 올해에는 사업 선정에 있어 지역안배와 장르균형, 신규사업 발굴,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이라는 4가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를 하였다. 우선 풍물의 경우 기존에 지원받던 호남지역 임실필봉마을굿축제와 '13년도에 신규 발굴 지원한 영남지역의 전국농악대축제에 이어 올해에는 경기도 지역의 '대한민국 무형문화제 <세계의 멋 한국의 흥>'를 신규 발굴 지원하여 전국 규모 풍물축제의 지역 안배 및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아울러 풍물에 치우친 장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용부문에서는 '국제2인무 페스티벌' 사업을 신규 지원결정하였고, 국악 부문에서는 기존에 지원받던 대한민국국악제에 이어 '북촌우리

음악축제'을 신규 발굴 지원하게 되었다. 민속분야는 '을미년 만날제'를 신규 발굴 지원하였다. 기존 지원 사업 중 '광주예술난장 <굿+판>'의 경우에는 지역민의 호응도가 높은 점이 장점이나 전통예술의 비중이 부족한 종합축제의 성격을 띠므로 '15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전통분야 예술가의 참여 및 프로그램 구성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액 결정에 있어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가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였으며, 우수 결과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에 준하는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공연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